

지난해 換率 4% 상승 精油業界 換差損으로 추가부담 늘어

지난 한해동안 對美달러 환율은 모두 4.0% 상승했다.

韓銀이 지난 해 12월 29일 고시한 對美달러 매매기준율은 1 달러당 8 백27원40전으로 83년 12월말 7 백95원50전보다 31원 90전(4.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對美달러환율은 지난 해 상반기에는 하락하기도 했으나 7~8월, 11월~12월 사이에 국제외환시장에서 달러貨가 강세를 보이면서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대미달러환율을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83년도 7 백76원18전에서 84년에는 8 백5 원2전으로 3.8% 상승했다.

이와 같은 환율상승에 따라 국내경유업계는 원유비 증가, 유전스와 외화차입금환차손 및 이자발생 등으로 인해 막대한 추가부담을 안게 되었다.

정유산업에 영향을 주는 외생적 변동요인으로 ① 원유가격 ② 환율 ③ 국제금리의 3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원유가격은 일정기간 고정되는 특성을 지닌 반면, 환율과 국제금리는 수시로 변동하므로 정유산업의 경영수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환율이 1% 상승할 경우 국내油価에는 약 1.3%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또 환율이 상승하면 원유도입 금융비용도 늘어나게 된다.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원유의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매일 1 백20

억원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 자금의 확보에는 산유국에서 원유선적, 국내도착, 정유사탱크 입고까지 약 30일, 원유재고기간 약 20일, 제품제고 약 20일, 판매후 대금회수기간 약 30일등 모두 합하여 약 1백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매일 1 백20억원씩 1백일 합계 1조2천 억원을 산유국에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모두 국내금융으로 충당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약 29억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국제금융시장에서 단기차입 조달하고 있다.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면 원유비 외에도 지불해야 할 외화채무와 그 이자는 그 만큼 늘어난다.

할당관세대상 축소 原油·나프타만 적용

정부는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수입역제시책의 일환으로 할당관세 대상을 대폭 축소, 올해 상반기 중에는 原油와 나프타에만 적용키로 했다.

지난 12월 17일 재무부가 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85년 상반기종 할당관세 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에는 국제수지개선을 위해 물가에 대한 과급효과가 큰 원유와 나프타등 2개 품목만 적용하고 나머지 5개 품목에는 기본관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원유와 나프타는 계속 할당관세 1%(기본 5%)가 부과되며, 어류, 오징어, 암모니아, DNT는 할당관세 10%에서 기본관세 20%, 알루미늄板은 할당관세 15%에서 20%로 각각 환원되었다.

할당관세는 국내물가안정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하 적용하는 제도인데 지금까지 어류, 오징어, 암모니아, DNT, 알루미늄판, 원유, 나프타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적용해 왔다.

유사휘발유 단속강화 動資部 새기준 마련

올해부터 유사휘발유를 제조·수송·저장하거나 판매할 경우 해당업소의 허가가 즉시 취소된다.

최근 동자부가 각 시도에 시달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규격외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송·저장 또는 판매과정에서 품질을 저하시킬 경우, 또 정량미달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1회 위반시 경고 또는 15일 이내 사업정지시키고, 2회 위반시에는 30일 이내 사업정지시키며, 3회 위반시에는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B-C油를 불법으로 수송·저장 또는 판매할 경우에는 1회 위반시에는 30일 이내 사업을 정지시키고 2회 위반시에는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유사휘발유의 제조원료인 솔벤트제조업 및 판매업을 종전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기존의 솔벤트제조업자나 판매업자들도 개별적으로 파악된 거래상황, 실적 등에 의해 새로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솔벤트판매대상도 실수요자로 국한시켜 세차장등 중간유통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金恒德 油公사장 일선 장병 위문



金恒德 油公사장은 연말을 맞아 지난 12월 12일 전방OO부대를 방문, 폐지 33마리 및 기타위문품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위문했다.

油公, 간부급 인사 승진 3명, 전보 5명

油公은 지난 1월 15일자로 劉承烈 업무부차장을 업무부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간부급 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의 내용을 보면 승진 3명, 전보 5명이다.

▲업무부장 劉承烈(업무부차장)

▲정유수급조정부장 權準五(정유부차장)

▲석유사업기획부차장 趙誠信(정유사업기획부기획과장)

▲석유사업개발부장 金翰經(종합기획부장)

▲종합기획부장 金守弼(석유사업기획부장)

▲석유개발사업부운영팀장 李종순(석유개발팀석유개발과장)

▲정유수급조정부안전환경과장 閔浩基(기술개발부기술지원과장)

▲정유수급조정부수급조정과장 車熙昌(석유사업기획부수급조정과장)

일 대한석유주를 합병키로 의결하고, 대한석유주주의 俞鎮弘이사와 金熙燦감사를 현직위 그대로 영업키로 했다.

美현트社 수석부사장 油公과 사업계획 협의

油公과 공동으로 北예멘의 마리브油田에서 석유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美国현트오일社의 허포드 수석부사장이 지난 12월 2일 내한,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일련의 협의를 가졌다.

또한 이들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蔚山정유공장과 동력자원부동을 방문, 상호관심사를 논의했다.

湖南精油 대폭 인사단행 임직원 71명 승진전보

湖南精油는 지난 1월 1일자로 金鉢洙전산부장과 趙芳來 釜山영업소장을 각각 상무로 승진시키는등 71명의 임직원에 대한 대폭적인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의 직급별 승진내용을 보면, 상무 2명, 부장 11명, 차장 4명, 과장 27명 등 모두 44명이 승진했다.

▲전산담당상무 金鉢洙(전산부장)

▲소매담당상무 趙芳來(釜山영업소장)

▲직매담당상무 李榮燮(영업담당상무)

▲관리부장 吳海鎮(경리부장)

▲경리부장 權雄憲(재정부장)

▲재정부장 權宅宗(삼경석유경리담당상무)

▲삼경석유경리담당상무/湖油부장 白吉九(재정부신용과장)

▲전산운영부장 黃英吉(전산부오퍼레이팅소프트웨어課長)

▲전산개발부장 朴鍾哲(전산부시스템 1과장)

▲釜山영업소장 李白雲(본사소매부장)

▲세방석유영업담당상무/湖油부장 梁在寬(본사직매부장)

▲호남영업소장 李啓伯(삼경석유영업담당상무/湖油부장)

▲사업지원 / 안전관리부장 崔文學(운영부장)

▲운영부장 朴性在(仁川저유소장)

▲仁川저유소장 張吉泰(釜山저유소장)

▲釜山저유소장 梁東錚(仁川

저유소해무담당부소장)

▲본사소매부장 金龍漢(釜山
영업소제 1 과장)

▲본사직매부장 李淳宰(釜山
영업소제 3 과장)

▲삼경석유영업담당상무 / 湖油
부장 鄭衛(영업기획부 영업통계
과장)

▲영업기획부장 金堺千(영업
기획부영업기획과장)

▲영업개발부장 鄭鍾秀(영업
개발부영업개발과장)

▲영업부서부장 鄭鎮浩(본사
직매부서율직매과장)

▲종합기획부장 方丁基(사업
기획부장)

▲원유부장 明永植(공장생산
기획 / 전산부장)

▲공장생산기획 / 전산부장 朴
尚彦(공장기술부공정기술1과장)

▲업무부업무담당차장 鄭承哲
(업무부업무과장)

▲사업지원 / 안전관리부안전담
당차장 徐元錫(안전과장)

▲수급부수급계획담당차장 朴
仁基(원유부원유과장)

▲기술사업부영업시설담당차장
盧原燮(기술사업부영업시설과장)

▲비서실비서과장 金春漢(비
서실선임사원)

▲인사부노무관리과장 李倫翔
(인사부선임사원)

▲인력개발부인력개발과장 金
盛夏(인력개발부선임사원)

▲관리부출납과장 金炳國(경
리부자산회계과장)

▲재정부채권관리과장 金光平
(관리부출납과장)

▲경리부일반회계과장 李康浩
(경리부상품회계과장)

▲경리부자산회계과장 李起鎬
(경리부일반회계과장)

▲삼경석유경리부장 / 湖油과장
李漢駿(일반감사부제 2 과장)

▲일반감사부제 2 과장 鄭鎮秀
(삼경석유 경리부장 / 湖油과장)

▲경리부상품회계과장 朴興吉
(경리부선임사원)

▲재정부신용과장 金榮烈(재
정부선임사원)

▲일반감사부제 4 과장 楊政勳
(일반감사부선임사원)

▲전산운영부오퍼레이팅소프트
웨어과장 金永薰(전산부선임사
원)

▲세방석유영업부장 / 湖油과장
元容仁(大田영업소제 2 과장)

▲삼경석유영업부장 / 湖油과장
黃東秀(大邱영업소제 2 과장)

▲LPG판매부 LPG판매과장 李
慶泰(본사소매부특수제품과장)

▲영업부서과장 魯義健(삼경
석유영업부장 / 湖油과장)

▲영업개발부영업개발과장 徐
正浩(영업개발부영업예산과장)

▲호남영업소全南지역담당과장
林鍾烈(본사소매부선임판매사원)

▲LPG판매부LPG조정기획과
장 李昌培(특수판매부선임판매
사원)

▲釜山영업소제 3 과장 徐允錫
(본사직매부선임판매사원)

▲본사직매부서율직매과장 李
光賢(특수판매부선임판매사원)

▲대邱영업소제 2 과장 李春世
(운영부선임사원)

▲영업개발부영업예산과장 林
仁澤(운영부선임사원)

▲釜山영업소제 1 과장 尹昌烈
(특수판매부선임판매사원)

▲영업기획부영업통계과장 吳
星煥(영업기획부선임사원)

▲仁川저유소LPG담당부소장
(과장대리급) 李麒熙(仁川저유

소LPG담당부소장 · 3 급)

▲馬山저유소장 全東葉(木浦
저유소장)

▲종합기획부종합기획과장 李
源九(원유부기획/개발과장)

▲원유부원유과장 俞成植(원
유부선임사원)

▲원유부가스조정과장 金柄烈
(원유부선임사원)

▲수급부수급조정과장 姜松求
(수급부선임사원)

▲수송부해송과장 文瑢九(수
송부선임사원)

▲사업지원 / 안전관리부사업지
원과장 申鉉根(기술사업부제도/
업무과장)

▲종합기획부사업기획과장 金
翊洙(사업기획부사업기획과장)

▲공장운영부원유저유과장 李
基奉(공장교대과장)

▲공장정비부정비과장 薛永植
(공장설계부선임사원)

▲공장생산기획 / 전산부전산개
발과장 具虎鎮(공장설계부선임
사원)

▲공장기술부열관리과장 金昌
煥(공장기술부선임사원)

▲공장기술부공정기술1과장
金完植(공장기술부선임사원)

▲공장교대과장 朴平男(공장생
산기획 / 전산부선임사원)

▲세방석유신용담당부장 / 湖油
과장 李官休(세방석유과장 / 湖
油선임사원)

正友에너지 인수작업

湖油, 12월 10일로 완결

湖南精油가 지난 9월부터 추
진해 오던 正友에너지의 인수작
업이 지난 12월 10일 麗水에너지,

正友開發、正友에너지 3 社대표들이 참석, 최종계약에 서명함으로써 완료되었다.

이날 최종계약서 서명에 이어 열린 正友에너지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새임원진을 선임했다. 麗水에너지는 금년 상반기중에 正友에너지와의 합병절차를 끝내고 正友에너지를 흡수할 예정이다.

새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 ▲ 회장=具平會
- ▲ 사장=金鳳完(유임)
- ▲ 전무=진영일
- ▲ 재무담당이사=金洸
- ▲ 영업담당이사=李英오
- ▲ 기술, 수급담당이사=鄭永熙
- ▲ 麗川기지소장(이사)=朴창남
(유임)
- ▲ 이사=許東秀
- ▲ 이사=李文浩
- ▲ 감사=임순기

84시즌오프대회 가져

京仁 테니스동호회

京仁에너지 테니스동호회는 지난 12.15 사내테니스장에서 30명의 테니스동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84년을 마무리짓는 「84시즌오프대회」를 개최하였다. 테니스대회를 마치고 나서 84년을 보내고 85년을 다짐하는 회식연을 마련하여 더욱 뜻깊은 대회로 장식하였다.

이날 입장자(조)는 다음과 같다.

- △ 우승: 차선희(기술부)
- 황선양(발전부)
- △ 준우승: 김용길(총무부)
- 방기석(총무부)

- △ 3위: 김성열(총무부)
- 박상만(비상계획부)
- △ 4위: 심영보(기술부)
- 양성환(비상계획부)
- △ 5위: 최윤(경리부)
- 이종수(비상계획부)

군경위문 및 이웃돕기

京仁, 따뜻한 歲暮를 함께

경인에너지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12.23~27 간에 걸쳐 엄동설한의 추위속에서 삼천만의 불침범으로 국토방위 및 치안 유지에 여념이 없는 工場 인근 육·해군 및 경찰부대를 방문하여 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칼라 텔리비전을 비롯하여, 부대에서 필요한 물품 11종을 전달하였다.

아울러 이웃 원창동과 대한노인회 인천지부 북구노인회에 각각 라면과 뱃김을 전해주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세모를 맞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하틀리유니온회장훈장 한국경제에 끼친 공로로

京仁에너지의 美国 츠 합작투자회사였던 UNION OIL사의 Hartley회장은 京仁에너지를 통하여 韓国경제에 기여한 공로로 작년 12월 銀塔산업훈장을 수여받았다.

통계적 관리기법활용 雙龍, 「실험계획법」발표회

雙龍정유 温山공장은 지난 12

월 1일 실험계획법 도입과 활용에 관한 4개 주제별 연구 결과 발표회를 가졌다. 과장이상 관리자 전원과 임원 및 관계 기술직 사우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연구결과 발표는 1개 연구팀이 30여분씩 약 2시간동안 진행됐다.

이날 발표회를 마치고 이선종 공장장은 『올 한해동안에 우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실험계획법에 의한 4개 주제의 연구를 성실히 인내로 결실을 보게 되기까지 지도해 주신 서울대 박성현교수와 관계사우 여러분께 감사 한다』고 말하고 『이번의 알찬 결실을 계기로 앞으로는 더욱 내실있는 연구가 진행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발표가 있기까지 지도를 담당해온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종합연구소의 박성현교수는 4개팀의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강평을 통해 『이러한 연구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신 높은 경영안목에 감사하며 이와같은 결과야말로 앞서가는 회사로서의 산학협동의 홀륭한 표본』이라고 말하고 『이번 연구를 통해 수준높은 현장관리 기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열성적인 연구태도와 적극적이고도 성실한 참여자세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교수는 이와 함께 『이러한 연구는 분야별로 지속적인 추진이 뒤따라야 하며 이를 위해 통계적 관리와 사고방식에 대한 계속적인 훈련과 활용은 각 분야에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생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無災害기록증 수여 勞動部長관, 雙龍精油에

노동부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쌍용정유 온산공장에 무재해 기록증을 수여했다. 이날 노동부 울산사무소에서 가진 무재해 사업장 표창식에서 노동부 장관은 무재해 기록증을 통해 『쌍용정유 온산공장은 지난 83년 10월 17일부터 84년 7월 20일까지 무재해 기록 100만인시를 성공적으로 기록하므로써 노동부가 시행하는 무재해운동에 참여하여 노사가 일치단결, 산업재해 예방에 전력한 결과 무재해 기록을 달성했으므로 무재해 기록증을 수여한다』고 치하였다.

한편 노동부장관은 이날 『사원 복지후생 담당 과장으로 적극적인 뒷바라지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원만한 노사 관계를 유지해 오는데 선도적인 실무역할을 수행하여 타 산업장의 모범이 되어온』 민웅기 노무 과장에게 장관상을 수여했다.

雙龍 温山공장 바둑대회 12월15일, 60여명 참석

雙龍정유 温山공장 기우회는 지난 12월 15일 오후 2시 제5회 공장장배쟁탈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울산시내 로터리 기원에서 열려 A조(1~5급), B조(6~10급)별 토너먼트를 벌인 결과 입상자를 가리기까지 장장 14시간동안 진행됐다.

조별 입상자 전원에게는 트로피와 부상으로 고급바둑판이 수여됐다.

▲A조= 1위 이보철(동력과)
2위 이종영(저유과) 3위 이종희(회계과)

▲B조= 1위 박운학(안전과)
2위 유인준(검사과) 3위 이희만(저유과)

雙龍精油, 銅賞을 차지 그룹QC발표대회에서

雙龍정유 温山공장 2개 품질관리 분임조가 제 7회 그룹QC분임조 발표대회에서 동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6일 쌍용빌딩 18층 강당에서 개최된 제 7회 쌍용그룹 공장새마을 품질관리 분임조 발표대회에 참가한 윤활유 2과의 넝쿨분임조는 「이젝터 운전방법 개선」으로, 송유과 들소분임조는 「기포제거기 속의 윤활기유 회수」를 주제로 발표하여 각각 동상을 차지한 것이다.

温山공장은 6회 그룹QC대회에서는 금·은상을 한꺼번에 석권하는 실적을 올린바 있다.

極東 불우이웃 도와 本社 및 釜山支社에서

極東石油 張洪宣사장 및 임직원 30여명은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강동구 성내동 소재 「애지보육원」을 방문, 특별지원금과 장학금 등을 전달하고 원아들과 함께 성탄축하예배 및 오락회를 갖은 가운데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한편, 本社 여직원모임인 「목련會」와 부산공장 여직원 모임 「한아름會」에서는 지난 해 12월 각각 일일찻집과 바자회를 열어 얻은 수익금으로 무의탁 결핵환자 수용소(「시몬의 집」)와 「소화영아재활원」 등을 방문, 불우한 이웃에게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極東石油에 자본투자 美계티오일서 40억원

굴지의 석유회사인 美國 게티오일이 極東石油에 40억원의 자본을 투자하였다. 지난해 10월 정부의 합작투자승인을 받아 12월 초에 불입완료함으로써 極東石油는 자본금이 180억원으로 증액되었다.

天然가스협의회 발족 수도권 5개업체 구성

韓国가스公社와 수도권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大韓, 서울, 極東, 仁川, 三千理도시가스 등 5개 업체대표는 지난 12월 28일 수도권天然가스협의회를 발족하고, 회장에 崔連植 가스공사사장을 선출했다.

오는 86년말 인도네시아로부터 LNG(액화천연가스)의 도입에 대비 설립된 이 협의회는 앞으로 ① 수도권천연가스 사업활동 종합분석 ② 가스산업에 관한 자료 및 정보교환 ③ 가스공급기술 및 기자재 표준화협의 추진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協會발전의 저해요인 과감히 척결할터』 劉時鍾부회장 新年시무식에서 강조

석유협회는 지난 1월 4일 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새해에는 보다 새로운 자세로 업무에 충실했음을 다짐했다.

劉時鍾부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로서 창립 5년을 맞는 석유협회는 앞으로 더욱 성장·발전하기 위해서『일하는 협회』「회원사에 기여하는 협회」, 「인정 받는 협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협회의 직원각자는 새로운 자세로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劉부회장은 『협회의 발전은 누가 해주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협회인 스스로 창의정신과 능동적인 봉사정신으로 회원사로부터 인정받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때 얻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타성과 무사안 일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비능률적인 요인을 과감히 배제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劉부회장은 또한 『올해에도 성

실·인화·협조의 協會訓을 견지하여 협회의 인화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과감히 척결하고, 성실하고 공직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포상을 실시하는 등 신상필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石油協會 人事

□ 퇴직

▲ 李瑄姬(기획부 조사과 5급)
(1. 5)

□ 채용

▲ 朴正心(기획부 조사과 5급)
(1. 21)

□ 產油国短信 □

英社, 새 油價体制 검토 현物시장에 맞게 蘇는 우랄產 75센트引下

英國 국영석유회사(BNOC)는 2월度 自國產 원유판매가격을 現物시장가격에 맞춰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蘇聯도 우랄產原油의 對西方수출가격을 배럴당 28달러인 公示價보다 75센트 인하함으로써 OPEC(石油수출국기구) 油價에 대한 引下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石油業界 소식통들이 밝혔다.

업계소식통들은 그동안 배럴당 28.65 달러로 책정돼 왔던 BNOC公示油價의 적용기간이 지난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BNOC가 새로운 油價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BNO C는 앞으로 現物시장가격에 맞춰 조정되는 油價체계를 채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노르웨이의 국영석유회사인 스타

트오일社는 公示油價를 고정시키기보다는 현물유가에 맞춰 석유수입업체들과 개별협상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蘇聯도 이같은 北海產油國들의 조치에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蘇聯은 1월度 우랄產원유를 배럴당 28달러로 책정된 公示價보다 최고 75센트까지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고, 유럽석유업계 소식통들이 18일 전했다.

이들 소식통들은 蘇聯이 선물시장에서 석유를 50~75센트 할인판매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최근 석유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여타 석유회사들이 취하고 있는 할인판매정책과 보조를 같이하기 위한 조치라고 풀이했다.